내 인생의 삼중 손해와 그 배상법

(레5:14~6:7)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양을 양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16.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의 삼중 손해와 그 배상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 인생의 삼중 손해와 그 배상법'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도박을 하면서 날린 돈이 십억인데 만일 도박을 하지 않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 십억이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면 사고 당하기 이전으로 돌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면 불구가 아닌 상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리가 불구인 채로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과정에서 가지 말았어야 하는 장소로 가던 그 때를 전혀 후회하지 않는 마음상태, 그리고 내가 불구가 돼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특별히 더 손해 보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로 복귀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로 인한 부분을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손해배상인데 여러분은 인생의 손익을 따지는 기준이 어떤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내 인생은 손익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금전관계가 손익 분별일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손해보고 이익을 보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인생손익을 따질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이고 뭐가 이익을 보는 인생이고 손해를 보는 인생입니까? 표면상으로는 여러분이 기뻐하고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행복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손해 보는 인생이 아니고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았어도 맨날 걱정만 했다면 돈으로 이익을 보았지만 더 불려야하는 생각을 하느라고 기뻐할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다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이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없는 손해의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손해의 분별기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았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를 따라서 분별이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지금 나이가 50살 이라면 20살 성인이 된 이후로 3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을 때의 지금의 결과와 30년 동안을 실지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아 본적이 없는 지금의 결과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20살로 돌아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추구할 수 있을 만큼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산 결과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산 30년의 결과의 이 차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고 목표하신 것이 있고 그대로 살았더라면 지금의 나타났을 결과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살았으므로 나타나는 지금의 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손해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다고 하면 내 인생이 A의 모양이 되었을 것인데 지금은 B의 모양, C의 모양, D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본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상태로 복귀하는 것인데 이 차이의 손해의 내용이 삼중 손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았으므로 나타나는 손해가 삼중 손해입니다. 먼저 계획하셨던 나의 인생을 상실하시므로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고 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계획하고 원하셨던 모습과 내가 원했던 모습과 어느 소설가나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과 꿈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모습이 가장 완벽한 나의 모습이므로 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벗어나므로 빗나가서 범죄 하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시고, 내가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손해가 나타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관계하는 나의 가족인 남편, 자식, 부모님,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내용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요셉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현실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중동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요셉은 만민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고 일이지 하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만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가장 완벽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잣대로 선민 나라의 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의 일이 삼중 손해의 마지막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해 보시고 내가 손해보고 이웃이 손해 보는 삼중 손해가 쌓이고 쌓여서 일년지나 이년지나 십년 지나면서 매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나타났을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천문학적 손해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 중에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贖愆祭)에 대한 얘깁니다. 이 속건제는 언뜻 보면 속죄제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씻기 위한 과정이 속건제에서 나타나고 속죄제도 마찬가지로 나의 범죄행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속죄제는 범죄를 행하는 주체인 나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내가 범죄하므로 나타나는 나 이외의 관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손해에 주목을 하는 것으로 속건제가 범위가 좀 더 큽니다. 죄를 범한 주체를 포함해서 내가 범죄하므로 나타나는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계명을 범하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성물인 성막의 기구라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하는 십일조라든지 첫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손해를 끼쳤을 때,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잘못 다룰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를 미치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6: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로 이웃의 재산에 이웃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근본 이유로 손해배상하게 하는 것이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단순한 물질적 손해배상의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계명을 어기는 행위가 범죄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고, 나 개인만이 상황 상황마다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또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물에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의 지성소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십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십니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

시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에 대해서는 모든 그날, 그날 이루어졌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 상실돼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를 또 내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완벽한 나를 잃어버리면서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많은 이익들이 다 제거되고 맙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삼중 손해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나타났을 그 결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내 인생이 후회할 일이 너무 많은데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후회할 일들이 다 제거되고 잘못이 없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이외의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모든 제사는 오직 십자가 제사로만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또 완벽하게 제사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속건제를 드리므로 내 인생에 나의 범죄로 발생한 모든 손해가 배상되어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던 결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질문해 볼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내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나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주의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 혼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차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삶이 진행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죄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 가실 수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걸어간다면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악인들이 천만인이 둘러쳐도 하나님은 천만인의 모든 역량들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내 인생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 팔려서 예수님이 손해 보신 것이 없고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손해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수 있다면 나는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손해 free man으로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설령 돈을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중에 일어났다면 그것 때문에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선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문제는 옆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삼중 손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옆에 천만인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도 나만 따르면 상관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편안하게 살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손해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손해가 아닙니다. 반드시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선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십자가 속건제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건제가 드려질 때 나타나는 일이 먼저 내게 손해가 발생했던 내 인생에 대해서 죽어버립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승천합니다.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잃으셨던 내 마음을 손해배상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을 가짐으로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마음의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은 나를 갖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구름위에서 머무를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인생의 과거에 대해서 눈곱만큼도 후회나 아쉬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늘에 앉힌바 되는 상태가 지속될 때 내 인생의 과거에 나는 잘못되고 그릇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섭리 속에서 이것이 부족했고 저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내 마음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타나는 느낌은 감사뿐입니다. 감사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상한 것은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의로 돈을 투자했다가 망해서 월세 방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도 내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면 이 현실이 아쉬운 현실로 느껴지지 않고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얼마든지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구름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서 안겼다면 이 땅의 삶은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가지셨던 목표를 향하여 경로재탐색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얘기나 나왔으니 말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의 아들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 왕국의 총리가 되는 경로는 인류역사 속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 해버리고 자의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졌다고 해도 산이 막히고 강이 막히고 바다가 막히고 온갖 장애가 있는 그러한 궁지로 내가 나의 삶을 몰아갔어도 십자가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이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존의 길을 찾지 않으시고 경로재탐색을 하시되 경로재제작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세우신 계획대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래 목표로부터 많이 이탈된 것이 얼마나 크더라도 상관없이 십자가 속건제를 드

리고 내 마음이 구름위의 하나님께 안겨있기만 한다면 내 마음은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 유지되고 하나님도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리고 내 몸이 살아야 될 이 세상의 삶은 얼마든지 경로가 이탈되었을지라도 상관없이 경로재탐색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표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비게이션에 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내비게이션은 불평 없이 경로를 재탐색해 냅니다. 유턴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원래 계획에 없던 경로들을 재탐색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로를 내가 지나쳐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범죄인데 십자가 생활화로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안에 하나님은 내가 도달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경로재탐색을 통해서 원래 목표하셨던 그 목표점으로 내 이 땅에서의 삶도 옮겨가신다는 얘깁니다. 십자가 속건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발생한 삼중 손해가 해결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끊임없이 마음이 구름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몸으로 만나게 되는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 회사직원들 동료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입게 되는 역사까지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범죄하고 살았으므로 앞으로는 속건제를 기준으로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은 필요하나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손해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조금도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만 하면 내 마음에는 전혀 세상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한 만족이 주어질 수가 있고 이 지상의 삶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경로재탐색과정을 통해서 본래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목표점을 향하여 나의 삶이 진행될 때에, 있는 길이라면 찾아내실 것이고 없는 길이라면 만들어서라도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치 요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손해를 다 제거해 버리고 잘못됨이 전혀 없었던 상태의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십자가의 힘이고 십자가 속건제의 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다섯 가지의 제사의 의미가 충족되게 하시며 특별히 내가 범죄함으로 누적되어 온 삼중 손해의 삶의 결과가 십자가 속건제를 통하여 온전히 배상되어서 지금까지

마치 전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범죄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로 복귀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